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분석: 사례 연구*

김길중·신문수·양현권·김진완
(서울대학교)

Kim, Kil-Joong., Shin, Moonsu., Yang, Hyun-Kwon., & Kim, Jin-Wan. (1999). Needs assessment of Korean university EFL learners: A case study.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2, 1-28.

For a new direction of college English programs,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Korean university EFL learner needs. With this goal, this study discusses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provided for 405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lso discusses a new direction of desirable English programs on the basis of the needs assessment.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까지 한국의 영어교육은 대체로 무엇(what) 어떻게(how)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누가(who) 무슨 이유로(why)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신문수·양현권·김진완, 1998, p. 2). 그 결과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교육 공급자가 획일적으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로 주도하는 방식이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 쪽으로 눈을 돌려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어교육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 학습자의 의사 소통 욕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거기에 합당한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을 찾는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내적인 실천적 압력일 뿐만 아니라 개방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영어 교육적 맥락에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영어 교과과정(curriculum) 및 교수요목(syllabus)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 필수적이고 선결 요소인 학습자의 필요 욕구(needs)를 조사 분석하는 데에 있다. 특히 학제적인 관점과 특수목적 영어(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와 관련된 관점에서 연구 개발된 신문수 외 2인(1998)의 필요 욕구 조사(needs assessment) 설문지 문항을 이용하여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모국어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 교과과정이나 교수요목을 설계하는데 먼저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요건으로 주창되고 있으나,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인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언어기능에만 관심을 두고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밝혀내고 분석함으로써, 현 대학 영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필요 욕구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신문수 외 2인(1998)이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의 필요 욕구 분석을 영어교육의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Witkin(1984)의 필요 욕구 분석의 목적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영어교육의 현장에서도 학습자의 필요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상과 기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필요 욕구의 개념(Witkin & Altschuld, 1995)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필요 욕구 분석은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의 해결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II. 선행 연구

영어교육 연구 분야에 있어서 특수목적 영어(ESP)나 학문목적 영어(EAP) 및 과업중심(task-based) 영어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학습자의 필요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분석은 교과과정의 설계, 교재 선정 및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Bensch, 1996). Bensch(1996)는 학습자가 학습배경과 학습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문지, 교과목 필수사항 및 과제 등에 대한 조사,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학습자와 교사에 대한 관찰 등으로 필요 욕구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록 학자에 따라서 필요 욕구 분석의 목적을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을 기술하는 데에 두거나(Johns, 1991) 혹은 학습환경 변화를 위한 근거로서 분석 결과를 이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Bensch, 1996) 등 필요 욕구 분석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학습자의 언어적이고 의사소통적인 필요 욕구와 목표를 찾아내는 출발점으로 필요 욕구 분석을 인식하고 있다(Ferris, 1998).

이제까지의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연구로는 Frodesen(1995)처럼 학습자의 학습배경과 학습목표에 대해서 학습자를 통해 조사하거나 Johns(1981)처럼 필요 교과목에 대해서 교사를 통해 조사하는 연구가 있다. 또한 Braine(1995)과 Horowitz(1986)는 학습과제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류를 통해서, McKenna(1987)는 실제 교실현장에서 학습자의 언어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Prior(1995)는 학습과제와 담화 및 교실 행위에 대한 조사로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필요 욕구 분석은 먼저 학습자의 목표영어 상황의 요소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영어 학습지도의 기초로 삼아 교사들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와 같은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조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신문수 외 2인,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영어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syllabus)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제 3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에 대한 내용 및 구성 등을 설명하며 설문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으로서 설문에 응답한 총 405명인데, 인문·사회 계열(사회, 지리, 역사, 국민윤리, 교육, 체육) 140명(34.6%), 자연 계열(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110명(27.1%), 어문 계열(영어, 독어, 불어, 국어) 155명(38.3%)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등록 학기는 5.4학기(3학년 1학기)에 해당하였고, 대학에서 수강한(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에 있어서는 교양영어 강좌가 56.9%, 기타 교양영어와 관련된 강좌가 27.0%이었으며, 교양영어와 함께 기타 교양영어와 관련된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전체 1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은 신문수 외 2인(1998)이 개발한 설문지 문항이었는데, 이것은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주된 방향으로 1) 의사소통 중심 및 학습자 중심 체제, 2) “감지된 필요 욕구(felt needs)”(Berwick, 1989)와 “과정 지향적(process-oriented)”(Brindley, 1989) 관점, 3) “대중중심분석(democratic analysis)”(Stufflebeam, McCormick, Brinkerhoff, & Nelson, 1985)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설문 문항이었다.

설문지 문항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영역, 즉 1) 응답자 배경에 관한 문항, 2)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 3)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 4)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 5)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부록 참조). 먼저, 응답자 배경에 관한

문항은 전체 4문항으로 학습자 자신의 학과, 등록 학기 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를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은 전체 10문항으로 대학 졸업후의 진로,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 현재 학습자 자신의 영어 실력, 영어학습을 통한 궁극적 언어기능별 수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 5문항으로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어의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과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언어기능에 대한 문항, 또한 학습자가 현재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과 대학의 영어강좌의 특징 및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학습내용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은 전체 8문항으로 크게 교재의 내용적 측면, 교수 언어의 측면, 학습 매체의 측면, 교수방법의 측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한 문항은 전체 3문항으로 영어강좌의 적절한 수강인원 및 적절한 주당 시간 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분석 방법으로 빈도 수와 백분율을 사용하는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있어서 인문·사회 계열(인문), 자연 계열(자연), 어문 계열(어학) 및 전체 응답자(전체)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별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 논의한다. 먼저 응답자 배경에 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후, 학습 동기와 관련된 설문 응답을 분석 논의한다. 다음으로,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 논의하고,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설문 응답을 분석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다.

1. 응답자 배경에 관한 문항 분석

총 405명의 설문 응답자중 학과 및 계열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사회, 지리, 역사, 국민윤리, 교육, 체육)이 140명(34.6%), 자연 계열(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110명(27.1%), 어문 계열(영어, 독어, 불어, 국어)이 155명(38.3%)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평균 등록 학기는 5.4학기였으며, 56.9%의 학생이 교양영어 강좌를 대학에서 수강하였거나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었고, 27.0%의 학생은 기타 교양영어와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였거나 또는 수강하고 있었고, 나머지 16.1%의 학생은 교양영어와 함께 기타 교양영어와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체적으로(66.2%)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정규 영어 과목 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10.8%).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어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 [표 1]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어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교재의 문제	2(5.3)	6(21.4)	7(20.6)	15(15.0)
영어교사의 문제	3(7.9)	1(3.6)	1(2.9)	5(5.0)
학생수의 과다	4(10.5)	1(3.6)	4(11.8)	9(9.0)
영어교육 방법의 문제	20(52.6)	18(64.3)	21(61.8)	59(59.0)
영어 원어민 교사 부족	7(18.4)	1(3.6)	1(2.9)	9(9.0)
기타	2(5.3)	1(3.6)		3(3.0)
계	38(100.0)	28(100.0)	34(100.0)	100(100.0)

[표 1]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어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거의 반 이상의(59.0%) 학생이 영어교육 방법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어교재의 문제를 그 이유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15.0%). 예상한 것과는 달리 학생수의 과다(9.0%)나 영어 원어민

교사 부족(9.0%), 영어교사의 문제(5.0%) 등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 이 결과로 보아, 효과적인 영어 교수방법과 영어교재가 고등학교 영어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 분석

먼저, 대학 졸업후의 진로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대부분(85.4%)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취업 직종으로 영어 사용이 보통과 많이 요구되는 직종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어문 계열의 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36.7%)이나 자연 계열(24.8%)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56.2%)이 영어 사용이 많은 직종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 졸업후의 취업 직종에서의 영어 사용 정도

설문문항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 사용 많음		51(36.7)	26(24.8)	86(56.2)	163(41.2)
영어 사용 보통		72(51.8)	51(48.6)	52(34.0)	175(44.2)
영어 사용 적음		16(11.5)	27(25.7)	15(9.8)	58(14.6)
결 측 값		1	6	2	9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또한, 대학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할 경우, 그 진학 유형을 다음 [표 3]과 같이 응답했는데, 전체적으로 6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했으며, 31.7%나 되는 학생들은 영어 사용권 해외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6.6%에 불과한 학생들은 비영어권 해외 유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자연 계열(11.4%)에 비해서 인문·사회 계열(40.0%)이나 어문 계열(36.6%)의 학생들이 영어권 유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표 3] 대학 졸업후의 진학 유형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국내 대학원	70(53.8)	71(80.7)	81(55.9)	222(61.2)
유학(영어권)	52(40.0)	10(11.4)	53(36.6)	115(31.7)
유학(비영어권)	6(4.6)	7(8.0)	11(7.6)	24(6.6)
결 추 값	11	22	10	42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다음으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방법 및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38.5%의 학생들이 '노력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이 전체의 31.9%, '이따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가 전체의 21.3%를 차지하였고, 8.4%의 학생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의 36.4%의 학생들이 각종 방송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각종 영어 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있고(27.3%) 사설 영어학원 수강이나(19.0%) 대학부설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11.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영어 수강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으로 거의 반 이상이(50.9%) 영어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40.1) 전공 서적 읽기(5.2%) 및 교양 서적 읽기(2.1%)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아주 적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은 다른 인문·사회 계열 및 어문 계열과는 달리,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38.8%)보다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44.8%) 영어공부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더 많았다. 반면 어문 계열에서는 의사소통의 목적(67.2%)이 각종 시험대비 목적(27.6%)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

설문문항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로 의사소통		42(40.4)	26(38.8)	78(67.2)	146(50.9)
각종 시험대비		53(37.9)	30(44.8)	32(27.6)	115(40.1)
교양 서적 읽기		3(2.9)	1(1.5)	2(1.7)	6(2.1)
전공 서적 읽기		4(3.8)	8(11.9)	3(2.6)	15(5.2)
기타		2(1.9)	2(3.0)	1(0.9)	5(1.7)
계		104(100.0)	67(100.0)	116(100.0)	287(100.0)

한편, 현재 학습자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53.3%)을 차지했고 ‘못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2.3%, ‘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8.6%를 차지했다. 반면 ‘매우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3.0%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현상을 보여 주었다. 특히 자연 계열의 학생은 잘 못한다고 자신의 영어능력을 판단하는 경향이 다른 계열의 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학습자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

설문문항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매우 잘함		3(2.2)	1(0.9)	8(5.2)	12(3.0)
잘함		26(18.7)	12(11.8)	37(24.0)	75(18.6)
그저 그렇다		74(53.2)	51(46.4)	90(58.4)	215(53.3)
잘 못함		34(24.5)	39(35.5)	17(11.0)	90(22.3)
아주 못함		2(1.4)	7(6.4)	2(1.3)	11(2.7)
결 측 값		1	1	1	2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또한, 학습자 자신의 영어능력이 부족한 원인으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했고(78.0%), ‘영어 원어민과 접촉기회가 부족해서’(9.2%) 또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몰라서’(8.0%)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부적합한 교재(1.6%), 비효율적인 교수방법(2.2%), 각종 교육기자재 부족(1.0%) 등은 학생들에게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어능력 부족의 원인은 주로 자신의 노력 부족인 것으로 밝

혀졌고, 영어 원어민과의 접촉기회 부족 및 효과적인 학습 방법의 부재도 가능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영어학습을 통한 궁극적 언어기능별 수준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 기능별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다음 [표 6], [표 7], [표 8] 및 [표 9]와 같다. 여기에서 최상급이란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상급은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차이가 있지만 영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는 수준을 말하고, 중급은 영어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애로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중하급은 영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그럭저럭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표 6] 청해(듣기) 목표 수준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최상급	28(20.6)	18(17.0)	50(32.9)	96(24.4)
상급	73(53.7)	54(50.9)	80(52.6)	207(52.5)
중급	22(16.2)	24(22.6)	18(11.8)	64(16.2)
중하급	13(9.6)	10(9.4)	4(2.6)	27(6.9)
결 측 값	4	4	3	11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표 7] 회화(말하기) 목표 수준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최상급	23(16.9)	13(12.3)	38(25.0)	74(18.8)
상급	61(44.9)	43(40.6)	84(55.3)	188(47.7)
중급	35(25.7)	39(36.8)	24(15.8)	98(24.9)
중하급	17(12.5)	11(10.4)	6(3.9)	34(8.6)
결 측 값	4	4	3	11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표 8] 작문(쓰기) 목표 수준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최상급	17(12.6)	15(14.6)	33(21.7)	65(16.7)
상급	56(41.5)	23(22.3)	75(49.3)	154(39.5)
중급	43(31.9)	48(46.6)	35(23.0)	126(32.3)
중하급	19(14.1)	17(16.5)	9(5.9)	45(11.5)
결 측 값	5	7	3	15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표 9] 독해(읽기) 목표 수준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최상급	35(26.1)	32(30.5)	63(41.4)	130(33.2)
상급	64(47.8)	48(45.7)	74(48.7)	186(47.6)
중급	29(21.6)	21(20.0)	13(8.6)	63(16.1)
중하급	6(4.5)	4(3.8)	2(1.3)	12(3.1)
결 측 값	6	5	3	14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표 6]에서 [표 9]까지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으로 상급이상을 언어기능별 목표 수준으로 정한 학생들은 청해에 있어서는 76.9%, 회화에 있어서는 66.5%, 작문에 있어서는 56.5%, 독해에 있어서는 80.8%로 나타나, 독해 > 청해 > 회화 > 작문의 순으로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 수준을 잡고 있다. 이 결과에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하는 목표수준이 표현영역의 언어기능인 회화와 작문에서보다 이해영역의 언어기능인 독해와 청해에서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청해에 있어서 상급 이상의 목표 수준이 어문 계열(85.5%) > 인문·사회 계열(74.3%) > 자연 계열(67.9%) 순으로 나타났고, 회화에 있어서는 [표 7]과 같이, 어문 계열(80.3%) > 인문·사회 계열(61.8%) > 자연 계열(52.9%) 순이었으며, 작문에 있어서는 [표 8]과 같이 어문 계열(71.0%) > 인문·사회 계열(54.1%) > 자연 계열(36.9%) 순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독해에 있어서는 [표 9]와 같이 어문 계열(90.1%) > 자연 계열(76.2%) > 인문·사회 계열(73.9%)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하는 각 언어기능의 목표수준이 계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학습자 자신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향후 노력으로 방송 영어강좌 활용(22.4%) > 대학 부설 영어강좌 수강(21.4%) > 사설 학원 수강(18.3%) > 대학 영어강좌 수강(10.6%) > 각종 영어 학습자료 활용(10.3%) > 방학 해외 어학연수(6.2%) = 휴학 해외 어학연수(6.2%) > 영어 원어민 개인 교수(3.1%) > 영어 동아리 연습(0.8%) = 방학 국내 어학연수(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각종 방송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각종 영어 학습자료 활용, 사설 영어학원 수강 및 대학 부설 영어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영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방송 영어강좌나 대학 부설 영어강좌에 의존하고 또는 사설 학원이나 대학의 영어강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에 있어서의 영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동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년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31.8%), 27.4%의 학생들은 1년, 17.7%의 학생들은 4년 이상, 13.9%의 학생들은 6개월, 9.2%의 학생들은 3년이라고 응답했다. 이 결과로 보아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0]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

설문문항	계열	인문(%)	순위	자연(%)	순위	어학(%)	순위	전체(%)	순위
대학 영어강좌 수강		14(10.3)	4	8(7.8)	5	19(12.8)	4	41(10.6)	4
대학 부설 영어강좌 수강		24(17.6)	3	33(32.0)	1	26(16.8)	2	83(21.4)	2
사설 학원 수강		34(25.0)	1	16(15.5)	3	21(14.1)	3	71(18.3)	3
영어 원어민 개인 교수		5(3.7)	8	2(1.9)	6	5(3.4)	8	12(3.1)	8
방송 영어강좌 활용		30(22.1)	2	26(25.2)	2	31(20.8)	1	87(22.4)	1
각종 영어 학습자료 활용		14(10.3)	4	11(10.7)	4	15(10.1)	5	40(10.3)	5
동아리에서 영어사용 연습		0(0.0)	10	2(1.9)	6	1(0.7)	9	3(0.8)	9
국내 어학 연수		1(0.7)	9	1(1.0)	10	1(0.7)	9	3(0.8)	9
해외 어학 연수		7(5.1)	6	2(1.9)	6	15(10.1)	5	24(6.2)	6
휴학 후 해외 어학 연수		7(5.1)	6	2(1.9)	6	15(10.1)	5	24(6.2)	6
결 측 값		4		7		6		17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3.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 분석

먼저, 학습자 자신에게 앞으로 가장 필요한 영어 언어기능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말하기(40.5%), 듣기(38.8%), 읽기(16.3%), 쓰기(4.4%) 순으로 언어기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11] 가장 필요한 언어기능

설문문항	계열	인문(%)	순위	자연(%)	순위	어학(%)	순위	전체(%)	순위
읽기		18(12.9)	3	23(20.9)	3	25(16.1)	3	66(16.3)	3
말하기		58(41.4)	2	35(31.8)	2	71(45.8)	1	164(40.5)	1
쓰기		5(3.6)	4	3(2.7)	4	10(6.5)	4	18(4.4)	4
듣기		59(42.1)	1	49(44.5)	1	49(31.6)	2	157(38.8)	2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위의 [표 11]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하기, 듣기의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읽기 능력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쓰기 능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언어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말하기, 듣기 언어기능이 상대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영어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필요 욕구는 대학 영어교육의 방향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하기에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언어기능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회화 부분(36.0%), 청해 부분(31.4%), 작문 부분(17.0%), 문법 부분(8.1%), 어휘 부분(5.9%), 독해 부분(1.5%) 순으로 어렵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기능에 관한 분석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현재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듣기(37.4%), 읽기(35.9%), 말하기(17.8%), 쓰기(8.9%) 순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듣기,

읽기와 같은 이해기능 중심의 노력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기능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학 영어강좌는 이러한 표현기능 중심의 교수, 학습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표 12] 현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언어기능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읽기	43(31.2)	41(43.2)	53(35.6)	137(35.9)
말하기	30(21.7)	15(15.8)	23(15.4)	68(17.8)
쓰기	3(2.2)	2(2.1)	29(18.7)	34(8.9)
듣기	62(44.9)	37(38.9)	77(28.4)	143(37.4)
결측값	2	15	6	23
합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의 영어강좌의 특징 및 영어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학습내용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학생들이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교양 영어강좌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수업이 대부분이었고(80.3%)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7.9%), 문법중심 수업(5.8%), 문화이해 중심 수업(3.1%), 쓰기 중심 수업(1.8%) 및 전공원서 읽기 중심 수업(0.8%) 등은 상당히 미약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영어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학습내용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3]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63.3%의 학생들이 듣기와 말하기를 선택하였고, 13.2%의 학생들은 읽기 전략훈련을 통한 독해력 향상을 선택했으며, 8.7%의 학생들은 실용문 또는 자유 영작문 쓰기를, 5.7%의 학생들은 속독을 통한 독해력 향상을, 3.7%의 학생들은 각종 영어 시험대비를 위한 연습을 선택했다. 또한 문화이해(2.2%), 전공 관련 영어연습(1.5%), 문법과 언어 지식(0.7%) 및 교재의 해석/번역(0.7%) 등은 아주 적게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대학 영어강좌에서 기본적인 언어의 4기능을 다루되 집중적으로 음성언어 중심의 듣기와 말하기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대학 영어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학습 부분

설문문항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인문(%)	순위	자연(%)	순위	어학(%)	순위	전체(%)	순위
속독을 위한 독해력 향상		9(6.5)	4	6(5.5)	3	8(5.2)	4	23(5.7)	4
읽기 전략 훈련		17(12.3)	2	16(14.5)	2	20(13.1)	2	53(13.2)	2
듣기/말하기		85(61.6)	1	75(68.2)	1	94(61.4)	1	254(63.3)	1
실용/자유 영작		11(8.0)	3	5(4.5)	4	19(12.4)	3	35(8.7)	3
각종 시험대비		6(4.3)	5	2(1.8)	5	7(4.6)	5	15(3.7)	5
문법/언어 지식		1(0.7)	9	2(1.8)	5	0(0.0)	9	3(0.7)	8
문화 이해		5(3.6)	6	2(1.8)	5	2(1.3)	6	9(2.2)	6
전공관련 영어 연습		2(1.4)	7	2(1.8)	5	2(1.3)	6	6(1.5)	7
교재의 해석/번역		2(1.4)	7	0(0.0)	9	1(0.7)	8	3(0.7)	8
결 측 값		2				2		4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4.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 분석

먼저, 대학 영어강좌 교수방법의 측면과 관련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강좌의 교수방법으로 다음 [표 14]와 같이 전체적으로 문법 설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 중심 수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75.7%), 소집단 중심의 과제 해결형 수업(15.2%)과 토론식 수업(7.5%) 및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듣기, 말하기 위주의 수업(1.3%)은 드물게 진행되었다.

[표 14] 대학 영어강좌의 교수방법

설문문항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인문(%)	순위	자연(%)	순위	어학(%)	순위	전체(%)	순위
문법/해석 위주 수업		97(72.9)		85(80.2)		111(75.0)		293(75.7)	
소집단 중심의 과제 해결형		25(18.8)		14(13.2)		20(13.5)		59(15.2)	
토론식 수업		9(6.8)		6(5.7)		14(9.5)		29(7.5)	
듣기/말하기 수업		2(1.5)		1(0.9)		2(1.4)		5(1.3)	
결 측 값		7		4		8		19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다음으로 교수 언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5]에서 보듯이 대부분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했으며(78.2%), 한국인 교수가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는 경우(11.7%)와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만 진행하거나(5.7%)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4.4%)는 상당히 드물었다.

[표 15] 대학 영어강좌 교수 언어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	5(3.8)	3(2.8)	9(6.1)	17(4.4)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 진행	14(10.6)	5(4.7)	3(2.0)	22(5.7)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진행	102(77.3)	83(77.6)	117(79.6)	302(78.2)
한국인 교수가 영어/한국어로	11(8.3)	16(15.0)	18(12.2)	45(11.7)
결 측 값	8	3	8	19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또한, 바람직한 대학 영어의 교수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표 1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거의 반 이상의 학생들(54.2%)이 시청각 기자재 활용한 듣기/말하기 중심 수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토론식 수업(22.0%) 및 소집단 중심 과제 해결형 수업(21.7%)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 영어강좌 교수방법으로 밝혀진 문법 설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 중심 수업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학생들만이 바람직한 교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16] 대학 영어의 바람직한 교수방법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문법 위주의 교수중심 수업	3(2.3)	1(0.9)	4(2.8)	8(2.1)
소집단 중심 수업	19(14.4)	21(19.8)	43(29.9)	83(21.7)
토론식 수업	34(25.8)	18(17.0)	32(22.2)	84(22.0)
시청각기자재활용 듣기/말하기 중심	76(57.6)	66(62.3)	65(45.1)	207(54.2)
결 측 값	8	4	11	23
합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바람직한 대학 영어강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표 17]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40.7%), 그 다음으로 한국인 교수가 영어/한국어로 진행하는 방법(30.3%)과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만 진행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반면, 이제까지의 진행 방법이었던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수업하는 방식은 거의 선호하지 않았다(2.8%).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은 이와 같은 전체적인 경향과 일치하지만, 어문 계열의 경우는 오히려 한국인 교수가 영어/한국어로 진행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고(40.9%) 그 다음으로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수업(31.5%)하는 방식과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 수업(24.8%)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영어강좌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해 줄 수 있는 영어 진행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7] 대학 영어강좌의 바람직한 진행방법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	59(44.0)	51(49.5)	47(31.5)	157(40.7)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 진행	35(26.1)	27(26.2)	37(24.8)	99(25.6)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진행	6(4.5)	1(1.0)	4(2.7)	11(2.8)
한국인 교수가 영어/한국어로	32(23.9)	24(23.3)	61(40.9)	117(30.3)
기타	1(0.7)	0(0.0)	0(0.0)	1(0.3)
결 측 값	7	7	6	20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마지막으로, 교재의 내용적 측면에 관련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먼저 거의 반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영어의 교재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56.9%), 불만을 나타낸 학생은 전체의 31.6%를 차지했고,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들은 11.3%에 불과했다.([표 18] 참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 대학 영어교재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자연 계열의 93.5%의 학생들이 영어교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교재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18] 대학 영어 교재에 대한 만족도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만족	16(11.6)	7(6.5)	22(14.3)	45(11.3)
그저 그렇다	72(52.2)	55(51.4)	100(64.9)	227(56.9)
불만족	49(35.5)	45(42.1)	32(20.8)	126(31.6)
결측값	3	3	1	7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다음으로, 현재의 대학 영어교재의 특징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 번역, 해석 위주의 강독수업 교재라고 응답했으며 (72.6%), 약간의 학생들은 속독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중심 교재라고 생각하였다(18.1%). 반면,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3.4%), 문화이해 중심 교재(3.1%), 전공 원서 읽기 중심 교재(1.6%) 및 영작문, 쓰기 중심 교재(1.3%)로 응답한 학생들은 아주 드물었다. 한편, 대학 영어강좌에서 사용하는 주 교재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전체 65.4%의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전체 15.2%의 학생들은 속독을 위한 독해력 중심 교재를 선택했고, 겨우 5% 정도의 학생들만이 강독 중심 교재, 문화 중심 교재, 전공 원서 읽기 중심 교재 및 쓰기 중심 교재를 원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영어강좌의 교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 [표 19]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89.9%의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54.8%), 영작문 및 쓰기(49.9%), 문화에 대한 이해(44.4%)를 선택했다. 그러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23.2%) 및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16.4%)은 바람직한 영어강좌의 교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은 전체의 경향과 일치하였으며, 자연 계열은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90.0%)와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55.5%)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역시 많았으나, 영작문 및 쓰기(39.1%)보다도 문화에 대한 이해(47.3%)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문 계열에서는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87.7%)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른 계열과는 다르게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53.5%)보다는 영작문 및 쓰기(64.5%)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계열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19] 바람직한 영어강좌의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78(55.7%)	61(55.5%)	83(53.5%)	222(54.8%)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129(92.1%)	99(90.0%)	136(87.7%)	364(89.9%)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34(24.3%)	16(14.5%)	18(11.6%)	68(16.8%)
문화에 대한 이해	58(41.4%)	52(47.3%)	70(45.2%)	180(44.4%)
영작문 및 쓰기	59(42.1%)	43(39.1%)	100(64.5%)	202(49.9%)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26(18.6%)	32(29.1%)	36(23.2%)	94(23.2%)
학생수	140	110	155	405

5. 강의 시간수 및 수강 인원에 관한 문항 분석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한 문항은 전체 3문항으로 영어강좌의 적절한 수강인원 및 적절한 주당 시간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적절한 주당 시간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0]과 같이 전체적으로 현재 주당 약 3시간에서 약 5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표 20] 적절한 주당 시간수

인문		자연		어학		전체	
현재 시간	늘임 시간	현재 시간	늘임 시간	현재 시간	늘임 시간	현재 시간	늘임 시간
2.9322	4.9459	2.6132	4.2857	3.7704	5.2500	3.2429	4.8857

또한, 현재 대학 영어 강좌의 수강인원은 대부분 31명 이상이었으며

(66.8%), 그 다음이 21명에서 30명이었고(19.7%) 20명 이하의 수강인원은 매우 드물었다. 다음으로, 대학 영어강좌의 수강인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수는 다음 [표 21]과 같이, 전체적으로 11명에서 15명 사이를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37.2%). 그 다음으로, 6명-10명(29.8%), 16명-20명(22.4%) 순이었고 5명 이하나 21명 이상은 거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영어강좌의 적합한 수강 인원수

설문문항 \ 계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5명 이하	10(7.3)	7(6.6)	3(2.0)	20(5.1)
6-10명	52(38.0)	31(29.2)	34(22.7)	117(29.8)
11-15명	47(34.3)	37(34.9)	62(41.3)	146(37.2)
16-20명	20(14.6)	26(24.5)	42(28.0)	88(22.4)
21-30명	6(4.4)	5(4.7)	7(4.7)	18(4.6)
31명 이상	2(1.5)	0(0.0)	1(0.7)	3(0.8)
결측값	3	4	6	13
합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이와 같이 현재 대학 영어강좌의 수강 인원수는 적절하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고, 앞으로는 최소한 20명의 수강인원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참 고 문 헌

- 신문수 · 양현권 · 김진완 (1998).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 1-18.
- Bensch, S. (1996). Needs analysis and curriculum development in EAP: An example of a critical approach. *TESOL Quarterly*, 30, 723-738.
- Berwick, R. (1989). Needs assessment in language programming: From theory to practice. In K. J. Robert (Ed.),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pp. 48-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ine, G. (1995). Writing in the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D. Belcher & G. Braine (Eds.), *Academic writing in a second language: Essays on research and pedagogy* (pp. 113-134). Norwood, NJ: Ablex.
- Brindley, G. (1989). The role of needs analysis in adult ESL programme design. In K. J. Robert (Ed.), *The second language curriculum* (pp. 48-6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ris, D. (1998). Students' views of academic aural/oral skills: A comparative needs analysis. *TESOL Quarterly*, 32, 289-318.
- Frodesen, J. (1995). Negotiating the syllabus: A learner-centered, interactive approach to ESL graduate writing course design. In D. Belcher & G. Braine (Eds.), *Academic writing in a second language: Essays on research and pedagogy* (pp. 331-350). Norwood, NJ: Ablex.
- Horowitz, D. M. (1986). What professors actually require: Academic tasks for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20, 445-462.
- Johns, A. M. (199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Its history and contributions.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67-75). Boston: Heinle & Heinle.
- McKenna, E. (1987). Preparing students to enter discourse communities in the U.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6, 187-202.
- Prior, P. (1995). Redefining the task: An ethnographic examination of

writing and response in graduate seminars. In D. Belcher & G. Braine (Eds.), *Academic writing in a second language: Essays on research and pedagogy* (pp. 47-82). Norwood, NJ: Ablex.

Stufflebeam, D. L., McCormick, C. H., Brinkerhoff, R. O., & Nelson, C. D. (1985). *Conducting educational needs assessments*. Boston: Kluwer-Nijhoff.

Witkin, B. R. (1984). *Assessing needs in educational and social program: Using information to make decisions, set priorities, and allocate resources*. San Francisco: Jossey-Bass.

Witkin, B. R., & Altschuld, J. W. (1995).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s: A practical guide*. London: Sage.

- 3) 영어 사용이 드물게 요구되는 직종
6.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학업을 계속할 경우, 그 진학 유형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1) 국내 대학원 진학
 - 2) 영어 사용권 해외 유학
 - 3) 비영어 사용권 해외 유학
7.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 1)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 2) 노력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 3) 노력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 4) 이따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이다.
 - 5)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8.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 영어 수강 이외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1) 대학내 어학연수 기관(어학연구소 등) 영어 프로그램 수강
 - 2) 사설 영어학원 수강
 - 3) 영어 모국어 사용자에게 개인 교습
 - 4) 각종 방송 매체의 영어시간 활용하여 독습
 - 5) 각종 영어 연습 자료(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활용
 - 6)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여 영어사용 연습
 - 7) 기타()
9. 위 8번 문항에서 답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영어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 2) 장차 예상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 3) 영어로 된 교양 서적을 읽기 위하여
 - 4)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을 읽기 위하여
 - 5) 기타()
10. 현재 자신의 영어능력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잘한다.
 - 2) 잘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못하는 편이다.
 - 5) 아주 못한다.
11. 위 10번 문항의 답으로 3), 4), 5)를 선택한 경우만 다음에 답하십시오.
 영어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2, 3개 순위대로 적으시오. ()-()-()
- 1)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 2) 학습 교재가 적합하지 않아서
 - 3) 교수의 교수 방법이 좋지 않아서
 - 4) 시청각 기자재 등 강의실 환경이 열악해서
 - 5)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접할 기회가 없어서
 - 6) 효율적인 영어 학습 방법을 몰라서
12. 영어학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언어 기능별로 밝혀 주십시오.
 (최상급: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
 상급: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차이가 있지만, 영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

는 수준

중급: 영어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애로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

중하급: 영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그럭저럭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준)

- 1) 청해(듣기) ()
- 2) 회화(말하기) ()
- 3) 작문(쓰기) ()
- 4) 독해(읽기) ()

13.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입니까? 2, 3개 순위대로 적으시오.

()-()-()

- 1) 대학에서 제공되는 영어강좌 수강
- 2) 대학내 어학연수 기관(어학연구소 등) 영어 프로그램 수강
- 3) 사설 영어학원 수강
- 4) 영어 모국어 사용자에게 개인 교습
- 5) 각종 방송 매체의 영어시간 활용하여 독습
- 6) 각종 영어 연습 자료(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활용
- 7)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여 영어사용 연습
- 8) 방학을 활용하여 국내 어학연수 참가
- 9) 방학을 활용하여 해외 어학연수 참가
- 10) 정규학기에 휴학을 하고, 해외 어학연수 참가

14.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얼마동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생각입니까?

- 1) 6개월
- 2) 1년
- 3) 2년
- 4) 3년
- 5) 4년 이상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

15. 다음의 영어능력 가운데 앞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순위대로 적으시오. ()-()-()-()

- 1) 읽기 능력
- 2) 말하기 능력
- 3) 쓰기 능력
- 4) 듣기 능력

16. 다음 가운데 학습하기에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것을 2, 3개 선택하여 순위대로 적으시오. ()-()-()

- 1) 청해 부분
- 2) 회화 부분
- 3) 작문 부분
- 4) 독해 부분
- 5) 문법 부분

22. 바람직한 대학 영어의 교수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문법 설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 중심 수업
 - 2) 소집단 중심 과제 해결형 수업
 - 3) 토론식 수업
 - 4)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한 듣기, 말하기 위주의 수업
 - 5) 기타()
23. 바람직한 대학 영어 강좌의 진행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
 - 2)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주로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
 - 3)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주로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 4)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는 강좌
 - 5) 기타()
24.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의 교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만족한다.
 - 2) 그저 그렇다.
 - 3) 불만족이다.
25.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의 교재의 특징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십니까?
- 1)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중심 교재
 - 2)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
 - 3)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수업 교재
 - 4) 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교재
 - 5) 영작문 및 쓰기 중심 교재
 - 6)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중심 교재
 - 7) 기타()
26. 대학 영어 강좌에서 사용하는 주 교재로 다음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 3개 선택하여 순위대로 적으시오. ()-()-()
- 1)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중심 교재
 - 2)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
 - 3)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수업 교재
 - 4) 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교재
 - 5) 영작문 및 쓰기 중심 교재
 - 6)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중심 교재
27. 바람직한 대학 영어 강좌의 교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2, 3개 고르시오.
(), (), ()
- 1)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 2)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 3)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 4) 문화에 대한 이해
 - 5) 영작문 및 쓰기
 - 6)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한 문항]

28. 영어 강좌의 주당 시간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현재는 () 시간을 수강하는데, 앞으로는 () 시간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2) 현재는 () 시간을 수강하는데, 앞으로는 () 시간으로 늘였으면 좋겠다.
3) 현재는 () 시간을 수강하는데, 이 시간수가 적당한 것 같다.
4) 기타()
29. 대학에서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의 수강인원은 어느 것입니까?
1) 5명 이하
2) 6-10명
3) 11-15명
4) 16-20명
5) 21-30명
6) 31명 이상
30. 대학 영어 강좌의 수강인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수는 어느 것입니까?
1) 5명 이하
2) 6-10명
3) 11-15명
4) 16-20명
5) 21-30명
6) 31명 이상

수고하셨습니다.